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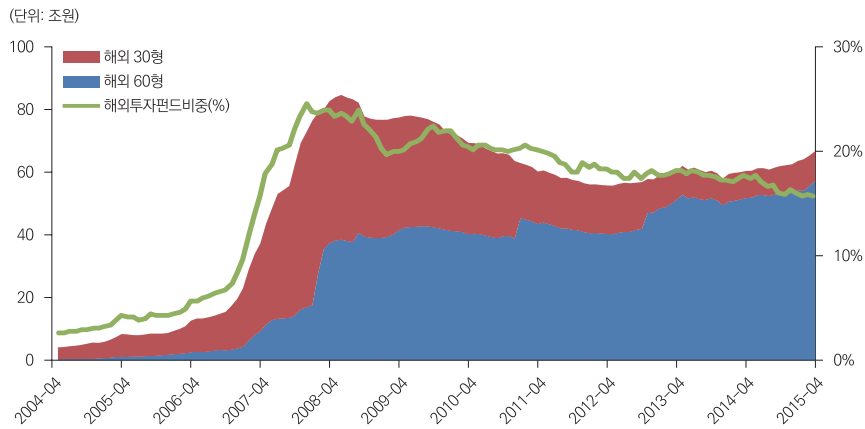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투자펀드시장 변화

-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감했던 해외투자펀드는 2012년 6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해외 60형펀드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
-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부동산·재간접 해외투자펀드 중심으로 투자 다각화를 추구하는 형태로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대체투자를 증대시키는 형태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 투자행태가 양극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감했던 해외투자펀드는 2012년 6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해외 60형펀드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참여 증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해외투자펀드는 펀드 자산의 30% 이상을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로 2007년 이후 주식형펀드를 중심으로 급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한 이후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이머징마켓 증시 활황과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효과로 주식형펀드를 중심으로 해외투자펀드 급증
 - 해외투자펀드 설정잔액은 2008년 6월말 84.9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2년 5월말 55.9조원 최저치 기록
 - 이후 해외투자펀드 설정잔액은 증가추세로 2015년 4월말 현재 66.9조원으로 회복
 - 전체펀드에서 해외투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하반기~2008년 상반기 18~24%까지 크게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5년 4월말 현재 15.8% 수준임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해외 60형(해외투자 비중 60% 이상)의 설정잔액과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해외 30형(해외투자 비중 30~60%)의 설정잔액은 감소하고 있음
 - 해외 60형 설정잔액은 2004년 12월말 0.6조원(해외투자펀드 중 11.3%)에서 2014년 5월말 57.3조원(해외투자펀드 중 85.7%)으로 증가함
 - 해외 60형의 경우 2004~2014년 연평균 57%씩 성장한 반면, 해외 30형의 경우 동기간 연평균 7% 성장함



해외투자펀드 설정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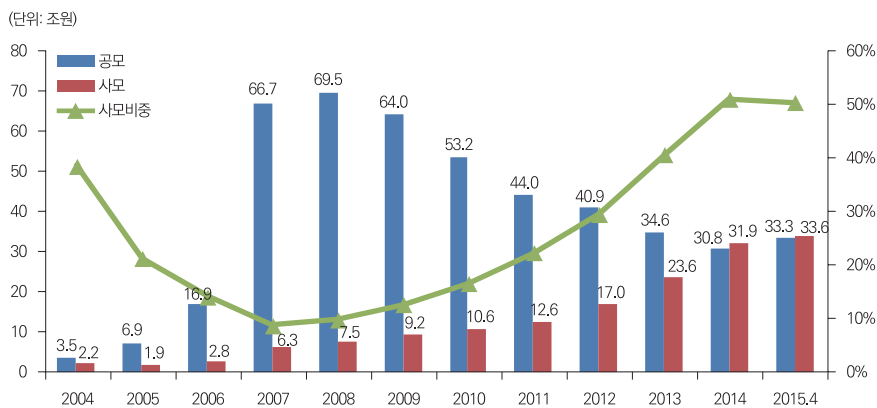


주 : 1) 공사모, 설정잔액 기준
 2) 해외 30형: 해외투자 비중 30~60%
 3) 해외 60형: 해외투자 비중 60% 이상
 자료: 금융투자협회

□ 금융위기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펀드 투자가 감소하는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부동산·재간
 접 해외투자펀드 중심으로 투자 다각화를 추구하는 형태로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2015년 4월말 기준 공모형 해외투자펀드의 규모는 33.3조원으로 2008년말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반면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형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2004년말 2.2조원(해외투자펀
 드 대비 38%), 2007년 6.3조원(해외투자펀드 대비 9%)에서 2015년 4월말 33.6조원(해외
 투자펀드 대비 50%)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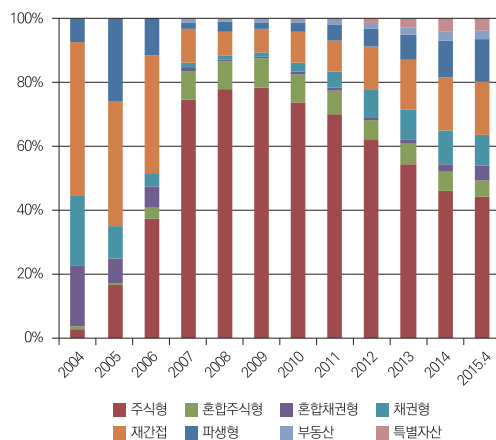
공사모 해외투자펀드 설정규모 추이



주 : 설정잔액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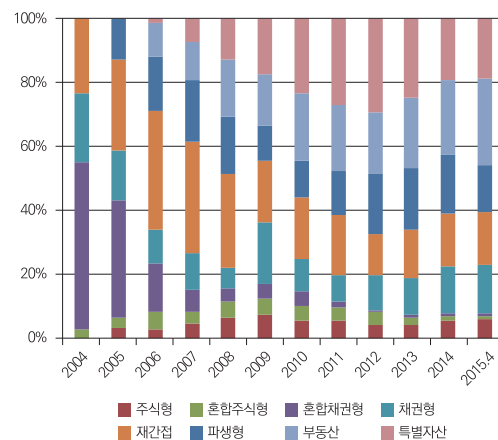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위험자산으로 인식된 주식형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반면, 채권형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이 확대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형 펀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나, 최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채권형과 중위험·중수익의 리스크-리턴 프로파일을 가진 채권혼합형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공모시장에서 주식형 해외투자펀드 비중은 2005년말 16.4%에서 2009년말 78.3%까지 증가했으나, 2015년 4월말 44.2%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채권형 해외투자펀드 비중은 2005년말 10.4%에서 2009년말 1.2%까지 감소한 이후 2015년 4월말 10% 수준으로 회복됨
- 기관투자자의 경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재간접형의 비중을 낮추는 반면, 최근 부동산과 특별자산형 해외투자펀드의 투자 비중을 높이며 대체투자 등 투자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기관투자자는 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및 재간접형의 투자 비중은 낮추는 대신 채권형과 대체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기타형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음
 - 기관투자자의 기타형(재간접,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형 포함)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비중은 2004년말 23.6%에서 2013년말 81.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최근 소폭 하락하여 2014년 5월말 76.9%를 차지함
 - 특히,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해외투자펀드 투자비중은 2007년말 11.9%에서 2015년 4월말 26.7%로 14.7%p 증가, 특별자산 해외투자펀드 투자비중은 동기간 7.4%에서 19.0%로 11.6%p 증가함
 - 기관투자자의 재간접형 투자비중은 동기간 35.0%에서 16.2%로 18.8%p 낮아짐

유형별 공모 해외투자펀드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형별 사모 해외투자펀드



자료: 금융투자협회



□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대체투자를 증대시키는 형태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 해외투자펀드시장에서 투자행태가 양극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 개인투자자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짐에 따라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더불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음
-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와 투자다변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한편, 부동산과 항공기, 선박, 유전, 조합지분과 같은 특별자산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자산 수익률 하락과 고령화·저금리 기조에 따라 포트폴리오 다변화, 투자수익 기회 발굴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해외투자펀드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외 주식형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의 투자여건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선임연구원 김규림